

중국의 FDI 현황과 정책변화 움직임

이만수 변호사
(법무법인 한중)

□ 중국 FDI(외국인직접투자)는 양적 측면에서 비교적 안정된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으며, 중국은 FDI가 산업구조 조정과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중국정부의 거시적 목표달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.

- 2012년 중국의 외자유치 규모는 소폭 하락하였으나, 3년 연속 1천 억 달러 규모를 초과하여 중국은 여전히 외자유치 금액을 기준으로 글로벌 선두 FDI 유입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음.

·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, 2012년 연간 실제사용 외자액은 총 1,117억 2천만 달러로, 2011년 대비 3.7% 하락함.

· 그러나, 2012년 소폭의 FDI 감소에도 불구하고 연속 3년 1,000억 달러 규모를 초과하여 외자유치에 성공하였으며, 2007년 실제사용 외자액 784억 달러 대비하여 무려 49.4%나 증가하였음. 특히 지난해 경기침체로 인해 글로벌 FDI가 18% 감소하고, 아시아 지역의 FDI 역시 약 9.5% 하락한 것과 비교하여, 중국의 외자유치 성과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됨.

· 2013년 1~4월 누계 실제사용 외자액은 383.4억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1.21% 증가하였음.

- 중국정부는 FDI 유입규모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자국의 산업구조 우월화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외국자본의 수준과 품질을 제고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, 2012년 FDI 통계데이터에 따르면 이러한 노력이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임.

· 2012년 실제사용 외자총액 중 48.2%에 해당하는 외자(538.4억 달러)가 중국의 서비스업에 투자되었고, 이는 연속 2년간 제조업에 대한 투자규모를 추월한 것. 2012년 실제사용 외자액 중 제조업에 투자된 금액은 총 488.7억 달러로 점유비율이 약 45%. 또한 동일 서비스 업종 내에서도 유통, 컴퓨터 응용, 금융서비스 등에 대한 FDI 유입이 증가하면서 투자품질이 보다 업그레이드 된 것으로 나타남.

· 일부 하이엔드(High-end) 제조업에 대한 FDI도 비교적 빠르게 증가하였음. 통신 설비 제조 및 교통운수설비 제조 업종의 지난해 실제사용 외자액은 각각 31.8%와 17.2% 증가하였음.

- 2012년 중국에 유입된 FDI는 지역분포 측면에서도 뚜렷한 변화를 나타냄. 동부지역에 대한 투자가 여전히 절대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기는 하나, 중부지역의 실제 사용 외자액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음.

· 2012년 지역별 외자유치 규모는 다음과 같으며, 동부지역의 실제사용 외자액이 2011년 대비 약 4.2% 감소한 반면, 중부지역에 대한 투자는 동기대비 18.5%나 증가하였음.

구분	실제사용 외자액	동기대비 증감	전체점유비율
동부	925.1억 달러	-4.2%	82.8%
중부	92.9억 달러	+ 18.5%	8.3%
서부	99.2억 달러	-14.3%	8.9%

□ 중국은 더욱 격렬해지는 글로벌 FDI 유치 경쟁에 대응하고, 외국자본을 활용한 자국 경제발전방식의 전환, 경쟁력 제고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, 최근 더욱 업그레이드된 투자환경을 제공할 것을 시사함.

- 중국의 FDI 유치는 양과 질적 측면에서 괄목할 만 한 성과를 기록하고 있음. 그러나 앞으로도 중국이 이러한 트렌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임.

· 중국의 FDI 유치실적은 늘어나고 있는 추이지만, 외상투자기업의 수익성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국에서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외국자본의 투자 메리트가 약해지고 있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음.

· 중국외상투자기업협회 상무부회장인 샤오상린(邵祥林)은 경영원가 상승, 내국민 대우, 지적재산권 보호, 각종 세 부담 과중, 정책 공개 및 투명성 등이 외자 제조기업이 보편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지적함. 이러한 문제가 합리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, 중국의 FDI 유치는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음. 실제로 중국의 노동코스트 상승, 세 부담 과중, 환경 및 에너지 효율 강조정책의 시행 압박 등을 이유로 중국사업 EXIT(철수)를 고려하는 기업들도 있음. 중국EU상회에서 발표한 <재중국 EU기업 비즈니스 신뢰조사 2013>에 따르면 약 10%의 기업이 중국에서의 투자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됨.

- 중국정부는 중국 경제성장의 주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외국자본을 보다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활용하기 위해 앞으로 FDI 환경을 더욱 우수하게 만들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함.

· 중국 상무부(商務部) 대변인 야오젠(姚堅)은 중국이 FDI 유치역량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다음 분야에서 중국이 유효한 성과를 거둘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밝힘.

첫째, 시장진입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가?

둘째, 법률환경을 더욱 완전하게 구축할 수 있는가?

셋째, 인적자원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가?

넷째, 행정심사제도 개혁을 통해 정부의 업무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가?

다섯째, 지적재산권 및 전자정보와 관련한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가?

· 중국 상무부는 중국의 FDI 투자환경을 보다 우월하게 개선하기 위해 외자 이용방식의 창조성 제고, 안전한 개방 메커니즘 구축, 외상투자 행정심의제도 개혁, 행정심사권한의 하부 이양, 유관 법률의 개정, “중국외자지수”도입 등과 같은 정책을 연구 및 추진하고 있다고 밝힘.

□ 2013년 5월, 중국정부는 외국자본과 관련한 새로운 정책을 집중적으로 발표하였으며, 외국자본에 대한 심사절차 및 투자환경 개선과 관련된 일련의 정책문건이 금년 중에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.

- 발개위(發改委)와 상무부는 6월 10일부터 시행되는 <중서부지역 외상투자 우위산업목록(2013년 수정판)>을 발표하였음.

· 동 목록은 환경보호 요건을 갖춘 노동밀집형 산업에 대한 투자유치를 장려하고, 서비스업 발전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정되었으며, 금번 수정 발표된 목록은 중서부 지역의 지리적 우위요인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중서부지역의 산업적 특징과 산업 수요를 반영하였음.

- 국가외환관리국은 5월 13일 시행된 <외국투자자 경내직접투자 외환관리규정>(이하 “규정”)을 발표하고 기존 외환관리 규정문건 24개를 폐지하여 FDI와 관련된 외환업무의 시스템화 및 편리화를 도모하였음.

· <규정>은 외상직접투자자와 관련한 외환등기, 계좌개설 및 사용, 자금의 수취와 지불, 외환결제 등 업무처리 지침을 분명히 규정하고, 일부 업무는 은행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외환업무 처리의 편리성과 신속성을 제고하였음.

- 지난 5월 15일 <국무원의 일련의 행정심사항목 취소 및 하부이양 등에 관한 결정> 문건을 발표하여 외상투자자에 대한 심사권한을 하부로 이양함. 또한,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외국자본의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망됨.

· 상무부는 지속적인 심사권한의 하부 이양, 외상투자 심사절차의 간소화, <정관> 및 <계약> 등 법률문건의 지정서식화 추진 등을 통해 외상투자기업의 편리도를 더

욱 제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힘.

· 또한, 상무부가 주도하여 외상투자관련 “3법”(외자기업법, 중외합작경영기업법, 중외합작경영기업법)의 개정작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으로 알려짐. 외상투자관련 “3법”은 지난 2001년 전후 개정된 후 약 10여 년 이상 변화 없이 유지되었기 때문에 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고, 특히 외국자본의 중국투자 심사절차에 대한 내용이 더욱 완전하게 마련될 것으로 보임.

· 더불어, 상무부는 중국 전역과 각 지역의 투자환경과 투자유치 우위요인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“중국외자지수”를 발표할 예정이며, 빠르면 금년 상반기 첫 발표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.

(작성자: 법무법인 한중 이만수 변호사)

(자료: 中國投資指南, 新華網, 經濟參考報, 中華工商時報 등)